

축 사

만물이 저마다 만개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무성한 향기를 내보이며 생명의 절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생명의 능력을 힘껏 보임으로써 상대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한 마음을 들게 하는 존귀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은 보는 이가 감화하는 것으로 완성을 이루어 낸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미술에 그치지 않고 예술을 넘어 문화의 생명력에까지 이르고자 하는 청원스님의 진력은 이와 다르지 않는 듯합니다. 수승한 전통문화의 관점에서 불교미술을 이해하고 현시대의 대중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염원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시대에 맞는 전통문화의 창달이라 할 것입니다.

불교미술이 때와 장소에 맞는 방법을 찾아 현시대를 담아냄으로써,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써 생명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불교미술을 지키고 가꾸며 현대적으로 창출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스님의 원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한국불교는 민족의 삶과 문화 그 자체였기에 불교미술에는 선조들의 간절한 마음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대의 아름다운 창작과 표현은 불교미술을 넘어 예경의 대상으로 승화하고자하는 수행과 노력이 깊숙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교미술의 전통을 온전히 연구 계승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시대에 맞게 펼쳐내는 노력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정신사의 중심에서 그 문화적, 신행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에 다른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뜻을 올곧게 이해하면서 후학을 지도하는 데에도 여념이 없는 청

원스님의 서원은 전통문화 발전의 훌륭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며, 나아가 계승한 불교문화의 전통이 힘차게 미래로 나아가는 뜻 깊은 불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려받은 문화를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담아내는 노력을 더 하는 것이야말로 전통문화를 진정으로 향유하는 것이며, 과거와 미래를 이어 생명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문화로써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세계적 흐름에 조응하며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신심을 이루는 것으로 전통문화의 생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이 자리의 공덕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통의 향기를 조화롭게 하는 미래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불기2557년 7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